

第一奇諺에 대하여

丁 奎 福

<目 次>

- | | |
|-------------------------------|---------------------------|
| 序 言 | 4. 번역자 洪羲福의 번역동기 및 방
법 |
| 1. 原作 鏡花緣의 概況 | 5. 第一奇諺의 國語史的 의의 |
| 2. 第一奇諺의 書誌의 사항 | 結 語 |
| 3. 第一奇諺의 번역자 洪羲福의 生
平과 小說觀 | |

序 言

第一奇諺은 그 부제가 '鏡花新翻'이라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중국 清代小說인 鏡花緣의 번역소설이다. 다시 말하면, 第一奇諺은 19세기 초엽에 번역자 洪羲福(1794~1859)에 의해 이루어진 手稿本으로 근 1백 50년동안 忠淸北道 槐山의 豊山 洪씨 후손들에 의해 깊숙히 잠아져 있다가 근자 필자에 의해 비로소 발굴된 귀중한 문헌이다. 이제 第一奇諺이 세상에 공개됨으로써 국어국문학계에 던져지는 의의는 본서에 뚜렷히 밝혀져 있는 번역년도 乙未(1835)를 통해서 한국의 번역문학사의 입장에서 뿐만아니라, 당시 중국어를 우리말로 옮겨 놓은 19세기 초엽 당대에 쓰여진 어휘·문체는 말할 것도 없고, 古語와 新語가 並用된 데서 오는 말하자면, 국어사적인 측면에서 더욱 크다고 하지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엔 많은 中國文獻이 訓民正音의 창제 이후 빈번하게 번역되었

다. 조선조 초기에 儒家經典을 비롯하여 佛家經典이 번역되어 이들은 龍飛御天歌·月印千江之典 등과 함께 조선조 초기 언어를 해명하는 데에 귀중한 문헌으로 평가됨은 주지된 사실이다. 그렇지만 文學書로는 成宗 12년(1481)과 仁祖 10년(1632) 두 번에 걸쳐 발간된 杜詩諺解는 문학 번역서로 귀중하지만, 또한 조선조의 초기언어 및 중기언어를 해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됨은 익히 아는 바이다.

이후 조선조 중기를 넘어서면서부터 中國小說類가 물밀듯이 우리나라에 전해옴에 따라 많은 중국소설이 번역되었다. 이들 중국소설 류의 번역물들이 현재 樂善齋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보면, 三國志衍義·水滸誌 등 四大奇書의 일부를 비롯하여 太平廣記·紅樓夢·今古奇觀·西周衍義·北宋衍義·平妖傳 등 무려 20여종을 헤아릴 수 있고,¹⁾ 또한 각처에 산장된 중국소설의 번역물을 함께 헤아리면 상당수의 번역물이 현존하고 있지만, 이들이 누구에 의해, 어느때 번역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유감이다.

그러나 第一奇諺은 번역자 및 번역년도를 확적하게 알 수 있을뿐 아니라, 본서가 번역자 洪羲福의 手稿本이라는 데 더욱 뜻이 있다. 말하자면, 본서가 鏡花緣의 번역본으로서 당시 조선조에 번역하는 방법을 엿보게 하는 번역문학사적인 측면에서도 뜻이 있지만,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조 초기언어를 해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龍飛御天歌·月印千江之典·經書類 및 杜詩諺解를 고비로 이후 조선조 중기를 넘어서면서부터 뚜렷한 譯書類의 자료가 없어 중기 이후의 언어를 해명할 수 없었던 차, 당시 언어의 방대한 자료가 담긴 第一奇諺의 출현으로 우리의 18세기 초엽의 언어사적 측면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본고에서 第一奇諺의 원문인 鏡花緣의 개항을 살피고 나서, 본서의 서지적 사항 및 본서의 번역자 洪희복의 生平和 小說觀, 번

1) 鄭炳昱: 樂善齋文庫目錄 및 解題<국어국문학(44, 45) 국어국문학회 1969.> 참조

역자의 번역동기 및 번역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서가 갖고 있는 국어사적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鏡花緣의 概況

鏡花緣은 百回本 장편소설로서 清代에 불우했던 李汝珍(1763~1830)에 의해 이루어진 일종의 사회비판 내지 작자의 理想을 그린 사회소설로서 胡適박사의 고증에 의하면, 대충 1825년에 이루어지고 세상에 출간되기 시작한 것은 1828년으로 되어 있다.²⁾ 이후 魯迅의 ‘中國小說史略’을 비롯한 中國小說史류에도 胡適의 고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면, 鏡花緣의 출간년도 1827년에 대해선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 같다.

鏡花緣의 자자 李汝珍은 清代 乾隆時人으로 그의 生平에 대해서는 直隸省 大興人으로 字가 松石, 특히 聲韻學에 정통하였고, 그의 저서로는 ‘李氏音鑑’ 5卷 ‘字母五聲圖鑑’ 2卷이 있다고 한다.³⁾ 그러나 위의 절막한 生平기록을 胡適은 더욱 상세하게 확대해 놓았다.

胡適의 고증에 의하면 鏡花緣은 1810년부터 1825년까지 10여년간의 세월을 들여 이루어졌다고 하며, 鏡花緣이 완성된 시기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대략 1828년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鏡花緣의 初刊本인 ‘芥子園雕本’이 1828년에 이루어지고, 1829년엔 ‘麥刻謝像本’(廣東本)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胡適박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1. 鏡花緣은 李汝珍의 만년 뜻을 얻지 못한 불우한 때의 작품이다.
2. 鏡花緣은 작자 李汝珍이 아직도 생존해 있을 때 板刻되었다.⁴⁾

위의 두 가지 사항은 번역서 第一奇譚과 연관된 중요사항으로 여기에

2) 胡適: 鏡花緣의 引論(胡適文存(2) 臺北 遠東圖書公司 刊, 民國 55年) p. 404.

3) 中國人名大辭典(臺灣 商務印書館刊) p. 389.

4) 胡適: 1. 鏡花緣은 李汝珍晚年不得志時作的. 2. 鏡花緣刻成時, 李汝珍還活着 胡適文存(2) p. 403.

우리는 鏡花緣이 박학하였을 뿐아니라, 聲韻學에 정통한 李汝珍이 그의 만년 불우했을 때 저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鏡花緣의 내용에 담겨진 儒·佛·道 三敎의 經典 뿐만아니라, 算數·律呂·天文·地理 등 九流의 여러 方技, 또는 韻學·卜術·奕·琴·馬弔·雙陸·謝 등 百戲까지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가히 알 수 있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鏡花緣은 박물학자 李汝珍이 그의 만년에 불우했을 때, 10년의 세월을 들여 1825년경에 완수된 것으로 작자의 당시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 내지 그의 이상을 그린 사회소설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 第一奇譚을 살피는 데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본다.

다음은 鏡花緣의 경계를 들어보자. 鏡花緣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百回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경계를 편의상 1회에서 50회까지, 51회에서 100회까지를 2부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 1 부는 다음과 같다.

唐朝의 武則天이 정권을 장악하자 徐慶業이 군사를 일으켰지만 실패하였다. 어느날 武則天은 취기가 도는 가운데 下令하여 百花가 일제히 피도록 했으나 마침 百花仙子는 외출하여 놀았으므로 물 花神은 자태를 나타낼 수 없었지만, 꽃만은 종이 피어 있었다. 玉皇上帝는 적시각이 아닌 때 피어 고음을 나타냈다고 하여 百位花神을 마침내 塵世로 귀양 보냈다. 百花仙子는 진세에서 唐敖의 딸로 태어났다. 이때 唐敖는 探花에 합격하고 徐慶業과 더불어 舊誼가 있었지만, 이로부터 唐敖도 徐慶業과 같이 失世된 처지가 되었다.

唐敖는 妻弟 林之洋과 함께 海外를 방황하게 되어 많은 나라를 지내면서 異國風俗을 관람하게 되었다. 후에 唐敖는 花草를 먹고 살다가 小蓬萊山에 들어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唐敖의 딸 唐蘭臣은 아버지를 찾아나서 海外로 돌아다니다가 泣紅亭에 이르렀는데 거기엔 百名花神이 진세에 내려와 탄생된 人間들의 姓名과 그 사적이 실려 있었다. 唐蘭臣은 이들을 적어가지고 돌아왔다.

제 2 부는 다음과 같다.

武則天은 才女들에게 과거를 배풀었다. 그 百名의 才女는 바로 모두 泣紅亭 碑文에 기재된 百名花神이 진세에 내려온 그대로의 人間姓名이다. 이에 과거에 합격한 才女들은 그네들을 경축하기 위해 배풀어진 宴會에 나아가 즐겼는데, 모든 才女들은 書·畫·琴·棋·醫術·卜術·星相·音韻·算法·燈謎·酒令·雙陸·馬弔·射鵰·蹴毬·鬪草·投壘 등 각종의 연회를 연출하며 재조를 자랑하였다. 내중에 唐閩臣도 아버지를 찾아 山으로 들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徐敬業 등 反臣의 아들들이 재차 병사를 일으켜 武則天을 치니 武則天軍은 酒色에 빠져 드디어 武則天은 패망한다. 그러나 中宗이 다시 일어나 武則天을 추대하여 ‘則天大聖皇帝’라 하였다. 武則天은 다시 下令하여 女科를 개설하고, 또한 前科에 합격했던 才女들을 청하여 弘文宴을 여는 것으로 鏡花錄의 모든 이야기는 끝난다.

위와 같은 경계에서 보면, 鏡花緣의 이야기는 弘文宴을 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으나, 실제로 모든 이야기는 종결되었는데, 이는 아마 魯迅이 언급한 바와 같이⁵⁾ 鏡花緣의 작자 李汝珍이 더 스토리를 확대한 것을 계획했다가 사정상 중단해버린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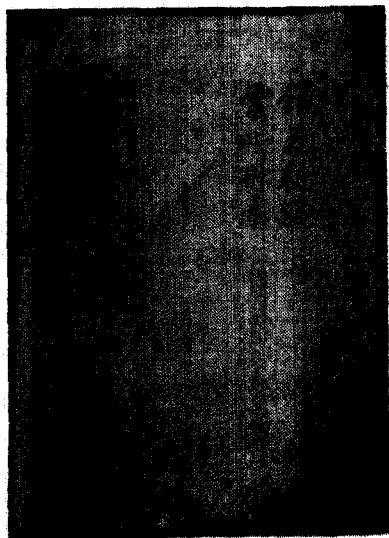
第一奇諺의 書誌的 사항

‘第一奇諺’이란 명칭은 번역자가 중국에서 三國誌衍義가 ‘第一才子書’로 불린 것에 따라 명명된 것인데⁶⁾ 현재 후손에 의해 전하는 것은 총 20권 중, 제 9권과 제 12권이 缺本으로 되어 18권이 전한 뿐이다.

5) 魯迅: 然以上僅全局之半, 作者自云欲知“鏡中全影, 且待後錄”, 則當有續書, 然竟未作 <中國小說史略>(香港 三聯書店刊) p. 207.

6) ……인문으로 번역해야 일흥하되 제일괴언이라 하니 사문이 그 뜻을 못거늘 대답하야 알 진녀쇼설중 삼국지물 니르되 제일괴셔라 황미 나는 일노씨 인문쇼설중 제일괴담인 고로 특별이 제일괴언이라 호노라 <1권 5장> 방점은 필자부

本書의 체재는 純韓紙로 되어 있는데 縱이 31cm, 橫이 20cm, 每頁 10行, 每行 20자 내외로 되어 있으며, 每卷 表紙엔 옆의 圖表와 같이 ‘鏡花新翻 雲耕草本’이라 작은 글짜로 쓰여 있고, 表題는 역시 ‘第一奇諺’이라 큰 글짜로 쓰여 있다. 小表題인 ‘鏡花新翻’은 鏡花緣을 새로 옮긴 번역물이란 뜻이고, ‘雲耕草本’ 중 ‘雲耕’은 번역자 홍희복의 雅號일 것이며, 따라서 雲耕草本이란 홍희복의 手稿本의 뜻을 지닐 것이다. 各권의 頁數와 筆寫干支는 다음과 같다.



- 1권. 96頁 을미원월초삼일〈乙未元月初三日〉 ※ 단구상촌 윤경누중의 회서호노라
- 2권. 108頁 을미정월십삼일〈乙未正月十三日〉 ※ 지금 경유육십삼〇〇〇개의 향다
- 3권. 96頁 을미원월이십이일〈乙未元月二十二日〉 ※ 병동회서
- 4권. 106頁 을미이월십이일〈乙未二月十二日〉 ※ 병중회서
- 5권. 94頁 을미납월망일서〈乙未臘月望日書〉
- 6권. 100頁 을미납월념오일서〈乙未臘月念五日書〉
- 7권. 95頁 무술원월晦일〈戊戌元月晦日〉 ※ 너어 쓰노라
- 8권. 96頁 무술이월초칠일서〈戊戌二月七日書〉
- 9권. 〈缺本〉
- 10권. 98頁 신축삼월초칠일서〈辛丑三月初七日書〉
- 11권. 84頁 명미납월초팔일서〈丁未臘月初八日書〉 ※ 이 책을 을미년에 시즉 하여 그사이 간간히 너어쓰다가 금년에야 저기 틈을 틈 맞기 둘기 약항나 그도 호허려 맞지 못항라로다.
- 12권. 〈缺本〉

- 13권. 95頁 명미납월십칠일〈丁未臘月十七日〉※ 대설중서〈大雪中書〉
 14권. 88頁 명미납월이십일〈丁未臘月二十日〉※ 취중에 그리노라
 15권. 91頁 명미납월년오일〈丁未臘月念五日〉※ 취중필서
 16권. 92頁 명미계석〈丁未除夕〉의 총망필서하니 금년에 늑권을 그려너니라
 17권. 88頁 무신원월초구일서〈戊申元月初九日書〉
 18권. 87頁 무신원월십삼일〈戊申元月十三日〉※ 병중서하노라
 19권. 85頁 무신원월십구일〈戊申元月十九日〉※ 취중서
 20권. 87頁 무신원월년이일〈戊申元月念二日〉※ 등하에 괴로히 쓰다
 ※ 위의 漢字 삽입은 필자

위와 같이 第一奇諺의 總頁數는 缺本 2卷을 제외하고도 2천여장에 이르고 있고, 또한 本書는 번역자가 1권의 번역을 마친 것이 乙未一月初三日로 되어 있어 번역에 착수한 것은 本書의 권마다 번역을 마친 것이 대충 열흘 간격으로 되어 있으므로, 줄잡아도 실제 번역에 착수한 것은 乙未年이전인 甲午年末에 해당될 것이다. 거기서 제 1권부터 제 6권까지는 乙未年〈1835〉 1년 동안에 마치고, 그간 2년 동안 쉬었다가 戊戌年〈1838〉에 제 7권과 제 8권을 마치고 다시 辛丑年〈1839〉에 제 10권 단 한권만 번역하고⁷⁾ 그간 7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丁未年末〈1846〉에 제 11권, 제 12권, 제 13권, 제 14권, 제 15권, 제 16권 등 무려 6권을 번역하고, 그 이듬해 戊申年初〈1847〉에 제 17권, 제 18권, 제 19권, 제 20권 등 4권을 번역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로 보면 본서의 번역은 乙未年〈1835〉에 착수하여 戊申年初〈1848〉에 마친 것으로 되어 있으니 꼭 13년이란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이는 결국 번역자의 40대 나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13년이 걸린 것은 번역자의 附注에서와 같이 病中 혹은 醉中으로 쉬면서 한가롭게 번역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다.

위의 사항 외에 第一奇諺의 序文엔 조선조 후기에 유행된 듯한 中國小說과 한국소설의 목록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中國小說：三國志·西遊記·水滸誌·西周衍義·歷代衍義

7) 제 9권은 缺本이므로 그 번역이 戊戌年인지 아니면 辛丑年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韓國小說：劉氏三代錄·眉蘇名行·曹氏三代錄·忠孝冥感錄·王鵞再會·林花鄭燕·冠萃公忠烈記·郭張兩門錄·華山仙潔錄·玉麟夢·關虛談·玩月會盟·明珠報月聘·淑香傳·風雲傳

위의 小說目錄을 통하여 이들이 중국소설이건 한국소설이건 번역자 홍희복 당시 이미 전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더구나 이들 가운데 현재 樂善齋에 남아 있는 소위 樂善齋本小說 중 大河小說로 귀중하게 평가되는 玩月會盟·明珠寶月聘·劉氏三代錄·曹氏三代錄 등이 순수 한국소설이나, 아니면 중국소설의 번역물이나의 문제에 대해 粉粉說⁸⁾을 일으키고 있는 이때, 이들은 國籍을 분명하게 한국으로 돌릴 수 있게 하는 귀중한 문헌임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 第一奇諺의 번역자 洪義福의 生平과 小說觀

第一奇諺의 번역자 洪義福은 현재 발간되어 있는 朝鮮人名辭典〈朝鮮總督府 刊〉이나 韓國人名事典〈新丘文化社 刊〉엔 그 이름조차 전연 등장하지 않는다. 이들 외에 國朝人物志나 國朝榜目에도 전연 출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홍희복의 生平에 대해서 자상한 것을 알 길이 없다. 다만, '豊山洪氏族譜'⁹⁾에 의하면 朝鮮朝 正祖 甲寅年〈1794〉에 나서 哲宗 己未年〈1859〉에 作故하고, 기타 官職 科擧문제엔 전연 기록이 없고, 그의 墓는 提川 古岩里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豊山洪氏族譜에 나타난 위와 같은 짝막한 行蹟과는 달리, 그의 後孫의 증언에 의한 것 같으면, 번역자 홍희복은 庶流出身으로 벼슬에 나아갈 수 없어, 자주 中國을 내왕하면서 중국소설을 구하여 읽었을 뿐 아니라, 第一奇諺의 序文에 의하면,¹⁰⁾ 學問〈性理學, 理자주〉을 못하여

8) 李相擇·明珠寶月聘 解題〈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9) 義福：字松瑞正祖甲寅四月八日生 官副司果 己未十二月二十二日卒·墓堤川提川面古岩里堂隔…〈豊山洪氏族譜 卷之二 一四八頁〉

10) 네 일즉 실학이야 과업을 넘우지 못하고 靑堂을 의서 한가호 썩 만호므로 세간의 권호는 바 언문쇼설을 거의 다 열남호니〈1권 3장, 4장〉

한가한 틈이 많아 횡당을 모셔 당시 전하던 국문소설은 거의 독파하고, 아울러 중국 白話小說인 三國志·水滸誌·列國誌·西周演義 등을 漢文으로 번역해 놓았다고 하였으나¹¹⁾ 이들이 애석하게도 현재 전하지 않는다.

더욱이 중국 自話小說을 漢文<古文>으로 번역하였다는 것은 번역문학 사상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위와 같은 사항으로 볼 때, 오늘날 관점으로 보아 번역자 홍희복은 당시 서류의 신분으로 인하여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과는 달리, 가위 번역문학가로 규정할만 한다.

다음 그의 小說觀에 대하여는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홍희복은 자주 중국을 내왕하여 중국소설을 구독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유전하는 한국소설을 독파하였고, 아울러 적지않은 중국소설을 번역한 소설가적 기질을 지니고 있다.

第一奇諺의 序文에 의하면, 그의 구체적인 번역동기를 논술하는 가운데서 또한 그의 뚜렷한 小說觀을 엿볼 수 있다. 우선 그는 소설이란 애초에 史記에 빠진 野史였던 것이 후대에 文章家들이 虛構<헛말>를 事實<실다히>로 꾸며, 독자로 하여금 天然한 것으로 보게 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소설이란 명식이 있어서 처음은 스귀에 썩진 말과 초야의 견학은 일을 거두어 모화너니 혹 널으되 야식라 하더니 그후 문장하고 널업는 선비 필목을 회롱하고 문쌍돌 허비하야 헛말을 늘어놓고 거웃닐을 실다히 하야 보는 사람으로 하야꿈 천연이 미드며 진경으로 맞드려 보기를 요구하니 일노 조죽 소설이 성형하야 근일에 우심하니¹²⁾

위와 같이 소설의 虛構性과 眞實性의 두 면을 언급한 것은 현대적인 소설관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것이라 보아지며, 한편 그는 聖經·賢傳과 禮記·小說 등이 당시 국문으로 번역되어 독서계에서 읽혀지나 무미

11) 대저 삼국지 서유기 슈호지 열국지 서유연의로부터 녀대연의에 뉴는 임의 진서로 번역한 비니<1권 4장>

12) 第一奇諺 1권 2경

하고 지리하여 허탄기괴한 소설과 신화를 다루어 읽게 되니 일없는 선비들과 才女들이 이름있는 古今小說들을 번역하는 한편, 虛言을 만들어 넣어 재미있게 꾸며 놓은 책이 幾千卷에 이르렀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대법 언문이 말하기 지세하고 비호기 쉬운고로 부인너즈는 언문을 위업하고 문쌍를 비화 너이지 아니하니 이 또한 흠시라 성경현견과 배괴소학을 비록 언문으로 작어 언휘라 일흠하야 부디 사롬마다 비화 본맛고져 하나 보느지 무미코 지리트하야 다만 소설신화의 허탄기괴한 비를 다토타 즐저 보니 일업슨 선비와 지조잇는 너지 고금소설에 일흠는 비를 낫낫치 번역하고 그 맛 허언을 창설하고 킨담을 번역하야 신기코 즈미잇기를 위쥬하야 거의 누천권에 지느지라¹³⁾〈방점은 필자〉

더욱이 위의 引文중 “일업슨 선비와 지조잇는 너지”에서 당시 小說作者層이 한가한 선비와 재조잇는 婦女층의 하나임을 규지케 할 수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항이다. 뿐만아니라, “고금소설에 일흠는 비를 낫낫치 번역하고 그 맛 허언을 창설하고 킨담을 번역하고 신기코 즈미잇기를 위쥬하야”에서 우리는 당시 小說이 자미를 위주로 번역과 창작이 並用되었음을 규지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의 근본적인 小說觀은 역시 朱子學의 강력한 영향이 朝鮮朝 全城을 휩쓸은 유가의 윤리주의적 입장을 固守하여 당시 板本으로 出刊된 春香傳·風雲傳류가 街巷鄙語로 되어 있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개탄하고 있다.

심지어 속향전 풍운전의 뉘 가항의 천호 말과 하류의 느즌 글시로 판본에 기각하야 시상에 미미하니 이로 기록지 못하거니와 대쳐 그 지은 뜻과 배론 말을 분진더 대동소이하야 사롬의 성정을 고쳐시나 소실은 흠스하고 선악이 너도하는 제고는 한마지라 견혀 부인너즈와 무식천류의 즐저보기를 위호고로 말슴이 비루하고 제척이 경천하야……만일 간악한 조의 공교한 예를 기

묘히 울히 녀일진디 그 히로오미 장춧 어디 미츠키요 이러므로 그으기 탄식
하고 김히 넘너라는 비라¹⁴⁾

위와 같이 번역자 홍희복이 당시 시대를 강하게 굴레썬운 儒家的 윤리주의를 조금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시대가 작가를 얼마나 강압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한편 유가적 윤리주의 밑에서도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新壽와 자미¹⁵⁾를 긍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암시하고 있다.

혹 괴롱하여 왈 문목을 회롱하디 홀 날이 무궁하거늘 선심은 홀노 언문을
중스하야 지필을 허비하니 장춧 무어시 쓰리요 내 웃고 대왈……다만 긴발
과 한가흔 아츨에 노친을 피시고 병쳐와 즈부너옴을 거느려 홀런 보고 두번
넘어 그 강개상패흔 곳의 다드라는 서로 일커러 탄상하고 그 담소회해흔
곳에 다드라는 호흔 일장환쇼하면 이 록히 쓰인다 홀 거시니 그 옛지 무용
이라 하리요 김이 웃고 허여저거늘 그 문답을 괴롱하야 권슈에 쓰노라¹⁶⁾

위에서 文墨으로 할 일이 많은데 何必이면 諺文小說에 종사하느냐는
客의 질문에 老親과 病妻·子婦·딸들과 함께 第一奇諺을 읽음을 통하
여 상쾌한 장면이 이르러 嘆賞하고 歡笑하면 足用하리라고 한 번역자
홍희복의 답에서 우리는 足히 文學의 快樂說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번역자 홍희복의 小說觀을 재정리하면, 그는 일찍이 중국소설과 한국
소설을 독파한 경험 밑에서 小說을 표면적인 虛構性과 이면적인 眞實性
의 양면으로 파악했으며, 아울러 小說의 倫理性을 강조한 것은 朝鮮朝
全城을 휘감았던 유가적인 윤리의식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러면서도
한편, 文學의 快樂味인 新壽와 자미를 암시한 것은 西歐文學批評史에
爭點이 되어 왔던 敎訓을 위주로 하여 快樂이 받아들여진 折衷說로 파
악할 수 있지않을까 한다. 말하자면 홍희복의 유가적인 윤리주의의 문

14) 第一奇諺 1권 5정~8정

15) 朝鮮朝 全城에 걸쳐 倫家的 윤리주의에 입자하여 小說 및 小說作者가 鐵錘를 맞는데
대하여서는 天台山人의 朝鮮小說史 <pp.17~21> 參照. 그렇지만 홍희복이 당시 新壽
와 자미를 암시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16) 第一奇諺 1권 10정, 11정

학관은 조선조로서는 최후를 장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4. 洪羲福의 번역동기 및 방법

홍희복이 鏡花緣을 번역한 동기에 대하여는 第一奇諺 서문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보인다.

우연히 근세중국선비 지은 바 소설을 보더니 그 말이 족히 사물의게 유익하고 그 뜻이 부딪 세상을 세뎃과져야 시속소설의 투를 버셔놓고 별노히 의소를 배퍼 경서와 소귀를 인증하고 거문벽서를 상고하여 신선의 허무흔 바를 말하되 곳곳이 빙계있고 외국에 괴괴흔 바를 말하되 낫낫치 너력이 잇서 경서를 의논하면 의리물 분석하고 소귀를 문답하면 시비물 질정하야 천문지리와 의약복서로 잡기방술에 니르혀 각자 그 묘를 말하고 범을 불히니 이 진짓 소설에 대방가요 박담하기의 으뜸이라¹⁷⁾

위에서 보면, 홍희복은 우연한 기회에 鏡花緣을 읽고 그 내용이 사람을 有益케 하는 言語가 많아 이는 時俗小說¹⁸⁾의 투를 벗어났고, 뿐만아니라 거기엔 經書와 史記가 引證되고, 奇文僻書 및 仙家를 언급하되 典故가 있고, 外國風俗이 언급된 데도 모두 來歷이 있고, 經書를 의논하면 義利가 分別되고, 史記를 문답하면 是非를 質正할 수 있고, 또한 天文·地理·醫藥·卜筮·雜技·方術 등 百家的 내용에 매혹되어 번역한 것 같다.

한편 그는 위와 같은 鏡花錄의 百家的 내용에도 뜻이 있었겠지만, 鏡花緣의 작자 李汝珍의 博覽多識한 것을 덧붙인 것을 보면,¹⁹⁾ 확실히 번역한 일차적인 동기는 鏡花緣이 지닌 百科全書의인 효용에 둔 것 같다.

17) 第一奇諺 1권 8장, 9장

18) 여기에 '시속소설'이란 홍희복이 第一奇諺의 序文 앞면에서 언급한 鄙俚한 言語와 內容을 지닌 春香傳·風雲傳류인 것이다.

19) 그 지은 사물의 뜻인즉 명성에 비호고 아는 비 이치치 너르고 집것마는 마흔너 뜻은 날우지 못하야 쓰일 곳 업는지라(1권 9장)

위와 같이 鏡花緣이 지닌 百科全書의 効用은 번역자 홍희복에게 윤리적인 효용으로 파악한다면, 앞장에서 언급된 홍희복과 客과의 문답에 등재된 “다만 긴밥과 한가흐 아춤에 노친을 되시고 병쳐와 즈부너으를 거느려 훌번 보고 두번 읽어 그 강개상쾌호 곳의 다드라는 서로 일커리 탄상호고”에서 우리는 번역자의 강한 ‘閨房의 자미’에 대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번역의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번역이란 것은 원작자의 내용에 한치도 보탬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것이 오늘날의 번역관이겠으나, 번역자 홍희복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때로는 異國風俗에 대하여는 우리 풍속에 적응시키기 위해 때로는 보태고, 때로는 빼기도 하며, 또는 고치기도 하여 자유롭게 번역해 놓았다는 것이다. 즉, 그의 번역방법을 第一奇緣 序文에 다음과 같이 전제해 놓고 있다.

이에 그 번거호 바를 덜고 간략호 곳을 보릭며 풍속에 갖지아닌 곳과 언어의 다른 곳을 곳치고 윤식호야 언문으로 번역호야 일홈호되 제일커언이라 호니²¹⁾

그러면 第一奇諺에 나타난 번역방법을 直譯과 意譯 및 添譯과 縮譯으로 나누어 살펴볼까 한다.

가. 直譯과 意譯

① 直 譯

고집허 막즈르고 화언교어를 천명을 방즈호니 실노 이뵈지 아니호야<1-36>²²⁾

20) 第一奇諺 1권 10정, 11정

21) 第一奇諺 1권 9장

22) 이후 第一奇諺의 卷數와 頁數를 다만 숫자로 표기하겠는데 예를 들면 ‘1卷 1頁’인 경우 ‘1-1’로 표시할까 한다.

偏執意作難, 一味花言巧語, 這樣翫腔作勢, 未死太過分了<2>²³⁾ 방점은 필자

두리건대 왕외 축근녕을 느리오실까 저러호노라<5-40>
恐金母要下逐客之令了<2> 방점은 필자

이 만일 명견언순하야 날이 맞당이 립홀 날이련<1-69>
若名正言順, 事在必行<4> 방점은 필자

그러나 직역에 치우친 나머지 때로는 直音을 취하여 번역돼 원문과 대독치 앎고는 뜻을 전연 분별할 수 없는 語句도 곳곳에 散在해 있다.

화설 당다이인이 군조국 도성의 니르러<3-1>
話說 唐多二人把廬看了, 隨即進城<10>

공교히 렬위선성의 구하를 만나니 저의게 비록 절쳐봄싱이라 하려니와<7-7>

今遇列位, 難自他絕處逢生<28>

위의 방점부분 ‘당다이인’ ‘렬위’ ‘절쳐봄싱’ 등은 원문 없이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도 무슨 말인지 전연 뜻이 연정되지 않는다.

② 意 譯

위와 같이 직역이 원칙이 되었지만, 번역자 홍희복은 그의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풍속에 알맞게 거의 全場을 의역해 놓은 것이다. 여기에서 의역의 개념은 이후에서 논의될 첨역이나 축역도 모두 이에 포함될 것이나, 첨역과 축역은 따로 항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제외시킨다.

① 설해 바야호로 분분표표하야 점점 더하야 경각의 주히 넘는지라 무위 크게 갖거 왈<1-60>

23) 鏡花緣의 章回표시는 다만 숫자만으로 표시하기로 하였다.

武后因雪越下越大，不覺道〈3〉

② 서린듯 반양을 방황하야 스스로 헤오더 홀노 거역하미 맛당치 아니므로 강잉하야 상님원을 향하니라〈1-23〉

呆了半晌，無計可施，惟恐違旨，只得也向上林苑而來〈4〉

③ 금동이 우어왈 실행이 움죽인다 하미 엇지 니르미노 쇼선은 일죽 실행이 움죽이지 아니하니 엇지하면 움죽이노노 선고는 모름죽이 죽서히 마르치라 일후의 조허 움죽어 보리라 흥해하왈 쇼선이 일죽 하제의 언문소설의서 그 말을 보아시니 실노 엇지 움죽이론 모로노니 선피 부디 알너하거든 느려가 그 칩지는 사름드려 무려보라〈2-8〉

金童兒道：何謂心血來潮？小仙自來未潮過，也不知心血是什麼味。畢竟怎樣潮法？求大仙把這情節說明，日後好等他來潮。紅孩兒道：我見下界說書上往往有此一說，其實我也不知怎樣潮法。大仙要問來歷，你只問那做書的就明白了〈6〉

④ 부귀하는 집은 그날 곳 당하면 돛글 열며 존치를 빼퍼 우양과 계견을 무슈히 잡아 주육이 낭조하다하니〈3-17, 18〉

富貴家至期，非張筵即演獻，必豬羊雞鴨類大爲宰殺〈12〉

위의 네가지 예에서 ①은 원문의 ‘雪越下越大’를 번역문엔 “雪禍가 바야흐로 紛紛飄飄하야 점점 더 와서 頃刻에 한 자가 넘는다”로 의역되어 있고, ②는 원문의 “呆了半晌，無計可施，惟恐違旨”가 번역문엔 “어린듯 半晌을 방황하야 스스로 헤아리기를 홀로 拒逆함이 마땅하지 아니므로”로 의역되어 있다. ③은 百花仙子 등 仙女들의 王母의 命을 어겨 上界에서 下界로 謫降되었는데, 이에 대해 金童兒와 紅孩兒가 그 대책을 강구하는 장면인데 예문에서와 같이 번역문엔 逐字意譯되지 않고 있거니와, 원문의 방점부분 ‘說邪’는 번역문엔 당시 朝鮮人의 讀者側을 의식하여 ‘언문소설’로 번역된 것은 매우 흥미롭다. ④는 君子國의 老人들이 天朝人 唐敖와 만나 그에게 天朝國俗에 동물을 죽이는 殺生을 힐난하는 장면인데, 원문엔 생일날 도야지·양·닭·오리 등을 잔치에

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번역문엔 방점부분에서와 같이 牛·羊·雞·犬 등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도 당시 조선의 독자를 의식한 일종의 改譯으로 보아진다.

2. 添譯과 縮譯

본고에서 첨역이란 원문의 내용에다가 번역자가 이야기를 더욱 확대해 놓은 것을 말하고, 축역이란 원문의 내용을 빼버리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만 번역을 하다 보면, 번역자의 뜻을 군데군데 더 보태는 수도 있고, 반면 원문의 뜻을 빼놓는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한 내용을 보태거나 빼놓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첨역은 본 소설의 첫머리부터 나타난다.

① 화설 천하명산에 곤륜산이 으뜸이니 하늘서편을 진정하여 높이 하늘에
 ㄹ측하니 좌편으로 요지를 남하고 우편으로 취슈를 들너시며 ㄹ리로 약슈샅
 만리를 격하니 그 우편 ㄹ흡경 구슬성을 두루고 열두층 비옥누를 세우니 이
 과연 낭원요지에 경누옥필이라 곳 서왕모 거쳐하시는 곳이니 서왕모의 성은
 후시오 존호는 구령태묘귀산금 모원군이라 서편하늘의 진묘홀 기운을 오로
 지 바다 탄심하니 곤도를 응하야 너츠의 장인고로 천상천하와 삼계십방의
 무릇너츠로 신선된 츄를 거느려 만물을 양육하는 비요 그 다음 세곳 신산이
 있스니 제일은 골은 봉니산이요 들지는 골은 방장산이요 셋지는 골은 영취
 산이니 이 너른바 삼신산이라 바다밖 섬ㄹ곳엔 잇서 원군을 축양치 못하니
 도리를 아노지 업스며 늙기 우이 업고 쥬회 ㄹ히 업노지라<1-11, 12> ※ 방
 점은 편자

且說天下名山，除王母所住崑崙之外，海島中有三座名山：一名蓬萊，二名方丈，三名瀛州·都是道路寫遠·其高異常·〈1〉

위의 원문엔 崑崙산이 단 한번 이름만 출현하는데, 번역문엔 그 방점 부분에서와 같이 崑崙산이 하늘 서편을 진정하여 높이 하늘에 가득하고 좌편엔 瑤池가 있고 우편엔 翠水가 있고 그 아래로 弱水三千里를 격했고, 그 위에 九重瑤城과 十二層白玉樓가 세워져 있다고 장황하게 첨역

해 놓았고, 西王母에 대해서도 西王母의 姓은 猴氏로 尊號는 구령태묘
 귀산금모원군이라 하고 서쪽 하늘에 진묘한 기운을 받아 탄생하여 坤道
 를 응하여 天上天下 三界十方의 모든 仙女를 거나려 萬物을 양육한다는
 기나긴 내용을 첨역해 놓았다. 이는 다분히 소설적 효과를 위해일 것이다.

② 그 부리로서 일흠하되 시뻘국이라 하더이다 원외왕 진실노 그런진디
 쇼계와 미제도 마춤너 죽이면 저곳의 와 환싱하며 구공이 쇼흔 면치 못하리
 로다 구공왕 님형은 알안지 오티거니와 일즉 거죽 말하물 듯지못하며 당형
 은 더욱 군조인이라 엇지 그 죄물 범하며 노부도 스스로 해오건디 부디 이
 곳의 환싱흔 폐는 짓지아니토다 원외왕 쇼계는 언변이 부족하고 아는 비적
 으니 과연 헛말은 못하거니와 다만 물화를 미미흔 서면 부디 한문 보들 거
 술 두문 달나하니 그는 헛말이 아니니잇가 당형과 구공은 일즉 글을 벌니
 보아 문장을 위업하니 그 문장의 지은 보를 볼진디 전혀 빛나고 보기 쇼귀
 를 위하야 헛거술 일컷고 빈 거술 비유하며 그중 쇼설총서를 짓는 조는 더
 욱 헛말이 아니라 하리잇고 구공이 쇼왕 님형 말슴이 쇼흔 그르지 아니토다
 홀 일이니 그 엇지 홀노 거죽말이라 하며 선비의 글지는 보는 전혀 빛글과
 빛말을 의거하야 인중흔 비요 스스로 창출흔 비 아니면 그도 죄물 면할 거
 시요 쇼설의 누도 비록 허언이라 하나 그중 뜻을 부쳐 사름을 경계코져하며
 헛말을 늘어 실스를 습으나 마춤너 허롭지 아니면 그 쇼흔 공으로써 허물을
 속하리니 저곳의 환싱하는 그 거죽말이 족히 나라를 망히오고 사름을 죽이
 며 지물을 앗고 부녀를 겁탈하는 늀니 엇지 일개로 의논하리잇고 이 마치 담
 쇼하야 슈일만의 빅너국을 지닐식(6-84, 86) ※ 방점은 원자

故鄴國都以豕喙國呼之，走了兩日，路過伯盧國(27)

위는 唐敖·多九公·林之下(원외)一行이 豕喙國에 이르러 담화하는 장
 면인데, 번역문의 기나긴 방점부분은 원문엔 전연 없는 부분이며, 이는
 번역자의 창의로 첨역해 놓은 것이다. 더욱이 방점부분 원외(林之下)의
 말 가운데 “쇼설의 누도 비록 허언이라 하나 그중 뜻을 부쳐 사름을 경
 계코려하며 헛말을 늘어 실스를 습으나 마춤너 허롭지아니며 그 쇼흔공
 으로써 허물을 속하리니”云云은 번역자 홍희복의 小說觀의 일단의 피

력이라고 보아진다.

이들 외에 첨역이 흑심한 장면은 唐敖一行이 徐承志〈세충〉를 敵國에서 구출하고 그의 妻 斌兒〈미아〉를 相面케 하는 장면²⁴⁾과 唐閩臣一行이 水月洞에서 겪는 광경을 재차 한담하는 장면,²⁵⁾ 등이다.

다음은 축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축역도 역시 1회부터 출현한다

상애 저의 일장경대훈 의논을 드르티 마장 소리의 맛당흔지라 다시 강박 지 못항야 경히 무로하더라〈1-32〉

嫦娥聽這一片話，甚覺有理，再難勉強：當不起風姨與月嬋素日親密，與花氏向來不和，便說出一段話來，未知後事如何，且看下回分解〈1〉 ※ 방점은 필자

위는 鏡花緣 초두에 나오는 嫦娥의 이야기인데 원문의 방점부분 風姨와 月嬋가 평소 친밀하였지만 花氏와는 전에 不和했다는 등의 일이 번역에서 제외되었음을 볼 수 있다.

천기 또한 화창하야 눈이 녹고 어름이 풀너 전연이 방춘물식이라〈1-74〉

天時甚覺和暖，池沼都已解凍，陡然變成初春光景。正是：池魚戲葉仍含凍，谷鳥啼花乍報春〈4〉 ※ 방점은 필자

위와 같이 번역문엔 원문의 방점부분 天氣를 중심으로 연못이 모두 얼음이 녹아 졸연히 봄과경이 되었고, 연못의 고기때는 잎을 회롱하며 얼음을 먹음고, 골자기 새들은 꽃을 회롱하며 봄을 알린다는 내용이 짝막하게 빼대만 번역되었다.

위의 예는 축역된 예이지만, 다음은 축역의 범주를 벗어나 大刪略된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당싱왈 구공말습이 과히 흑하시도다 우리 늙은 바는 당세의 큰 선비의 주 너신 비니 전혀 공명의 뜻을 천양코져 십념을 다훈야 말이 못가오디 뜻이 멀며 글이 간하되 의논이 북아 흥번 늙으미 성현의 도학이 찬연이 북아시니 한진이히

24) 鏡花緣 25回, 第一奇談 6권 29정

25) 鏡花緣 51回, 第一奇談 13권 31정-33정

로 이어서 느으니 업는지라 그 공이 성문의 으뜸이요 그 효력이 후학의 미
츠미니 엇지 감히 망년된 시비를 더하리오 혹자 우연이 혼두못 주셔치 못하
미 있다 혼들 엇지 모기눈셈의 혼털노 일월의 빛을 마리오리오 넘는 지 맛
당이 글노써 말을 해치말며 말노써 뜻을 해치말면 스스로 그 의를 알니니 대
체로 의논컨대 공자의 도를 존승하시른 전혀 밍즈의 힘이요 공맹의 학을 보
히시른 홀로 이 주로 뵈미암으미라 하느이다(4-70, 71)

唐敖道：九公此話未免罪過，小弟聞得這位解作去聲的乃彼時大儒，祖居新安
其書闡發孔孟大旨，殫盡心力，折衷舊解，言近旨遠，文簡義明，一經誦習聖賢
之道，莫不燦然在目；漢晉以來，注解各家，莫此爲善，實有功於聖門，有益於
後學的，豈可妄加評論？即偶有一二註解錯誤，亦不能以蚊睫一毛掩其日月之
光，即如孟子誅一夫及視君如寇讎之說，後人雖多評論，但以其書體要而論，昔
人有云：總群聖之道者，莫大乎六經；紹文經之教者，莫尚乎孟子。當日孔子既
沒，儒分旨八，其他縱橫捭闔，波譎雲詭，惟孟子挺命世之才，距楊墨，放淫辭
明王政之易行，以救時弊；闡性善之本量，以斷群疑；致孔子之教獨尊千古，是
有功聖門，莫如孟子，學者豈可皆議？況孟子誅一夫之言，亦因當時之君，惟
知戰鬪，不務修德，故以此語警戒，至寇讎之言，亦是勸勉宣王待臣，宜加恩禮
都爲要救時弊起見，當時戰國，邪說橫行，不知仁義爲何物，若單講道字，徒費
唇舌，必須喻之利害，方能動聽，故不覺言之過當，讀者不以文害辭，不以害志
自得其義，總而言之，尊崇孔子之教，實出孟子之力；闡發孔孟之學，却是新安
之功，小弟愚見如此，九公以爲何如？多九公聽了，不覺連連點頭，未知得事如
何，見看下回分解(18) ※ 방점은 필자

위는 唐敖와 多九公이 黑齒國의 紫以仙子和 紅以仙子로부터 수모를
당한 후, 孔孟을 논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그 내용에서 번역문엔 원문
의 지나긴 방점부분이 전연 제외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큰
장면이 번역에서 제외된 것은 唐敖一行이 智佳國에 이르러 燈迷놀이를
하는 장면²⁶⁾이다. 특히 鏡花緣 70회〈第一奇諺 20권〉 후엔 곳곳에 大
略된 장면이 출현하는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원문의 내용이 군말이 많아
독자들에게 별로 흥미를 끌지 못한다고 생각한데서 야기된 듯싶다.

26) 鏡花緣 31回, 第一奇諺 7권 91, 92정

5. 第一奇諺의 國語史的 의의

第一奇諺의 국어사적 의의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번역자와 번역년도가 모두 뚜렷하게 밝혀져 있다는 데 있다. 즉, 第一奇諺이 번역자 홍희복에 의해 1835년도에 번역되기 시작하여 1848년도에 마쳐졌다는 뚜렷한 年紀를 통하여 우리는 조선조 말기 19세기 초엽의 우리의 언어동향과 양상을 저오기 살필 수 있게 하는 可能性에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어사적 의의는 第一奇諺 곳곳에 출현하는 古語와 古文體, 그리고 古語와 新語, 또는 古文體와 新文體 등이 함께 並行되어 있다는 데서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엿볼 수 있는데 하나는 朝鮮朝 前期부터 後期 당시까지 古語가 쓰여졌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古語와 新語가 갈림길에 있었다는 사실 등의 국어사적 의의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본고에서는 古語와 古文體, 古語와 新語 및 古文體와 新文體 등 두가지 향으로 나누어 살필까 한다.

가. 古語와 古文體

① 古語

대답을 기다리지 아니코 소미를 잊그러 표현이 너러나니<1-71>
即拉了桃花仙子, 竟一同而去<4>

칼과 도치로써 해분을 민들다<1-77>
用刀斧搥存蜜粉<4>

서성화는 한번 췌면 아홉달까지 이우지아니 함음느니<1-8 >
他如瑞聖花一經開放, 必經九月之久<5>

맛당히 녀슈지곤 혼희어 녀학스와 녀승상을 식여<2-24>
自然該有秀才, 女丞相以做女君輔弼<7>

존귀이 만일 그 뉴락함을 어엿비 녀여<2-31>

倘處士憫其凋零<7>

상히 부모를 설와 해선의 울나 좌의를 흉기하니<2-35>

向日常在海般，跟着父母飄傘<7>

그 모양이 가디피 갓흐며 전신이 검어 먹칠흔듯하고 부리는 회기 옷갓히
라<2-56>

只見其形似鴉，身黑如墨，嘴白如玉<8>

내 일죽 스오나온 사롭이 아니니<2-84>

我非反人<10>

부귀하는 집은 그날 곳 당하면 듯글 열며 존취를 베퍼<3-17>

富貴家至期非張筵即演獻<12>

병마를 만히 석이이리 벌을 느리와 변방의 슈즈리 보너지더니<3-38>

兵馬折損，以致發遣遠戍<13>

손에 혼병 술을 들고 혼손의 듯히 머리를 들고<3-56>

手中提着一把酒壺，人個豬首<14>

임의 북중의 머무지아닐진디 시러곰 비골푸딜 죄울길 업스리니<3-71>

既不停留，自然不能允航<14>

일죽 심히 빈한흔 집도 업고 마장 마움연 집도 업스니<3-72>

向來也無極貧之家，也無大富之家<14>

목으티로 몸기턱 쏘흔 석즈이라<4-4>

頸長三尺，身長三尺<16>

대쳐 풍속의 닉고 쏘흔 구항기 어렵지아니미러라<4-14>

大約性之所近<16>

중추의 온거슨 그 흥안의 어이요 구월의 온거슨 그 샷기 어린거지라 <4-43, 44>

蓋以仲秋來的是其父母，其子羽翼禿弱，不能隨從，故於九月方來<17>

이는 살편 뉘을 타고 가부야은 갓옷을 입다라미니<4-48>

蓋言子華所騎的是肥馬，所穿的是輕衣<17>

그 사람이 키는 팔척이나하되 몸의 또한 팔척이나하니<4-88>

一個個身長八尺，身寬也是八尺<20>

원의 미쳐 대답지못하고 크게 웃어왈<4-95>

林之洋未嘗回答，光發笑道<20>

머리 어슬하고 눈이 어슬거니와<4-102>

頭暈眼花<20>

오직이 서로 닮이여 극히 선명하거늘<5-3>

五移相映，分外鮮明<20>

속상이 새하되 이새 이긋흔 오직을 마초아시미<5-4>

肅霜以爲此鳥具如許彩色<20>

두날이를 부쳐 보로 단계암을 향하야 넘놀며 춤츄니<5-4>

舒張兩翅，朝著丹桂巖，盼膝起舞<20>

독술위를 향하야 그 흰머리를 어즈러이 치니<5-11>

對着禿鷲一連幾尾，把個禿鷲打的鮮血淋漓<21>

할낫 밧도치 두귀를 부치고 부리물 쓰올며 혼드적에<5-14>

一隻野豬，攜着兩耳，一步三搖<21>

혹조 선생이 다시 불너 글을 지을가 저혀<5-45>

惟恐先生仍要談文<22>

원의왈 이위 하되 하더면 쇼경이 또 되야 저 사들들이 길을 무를번하도다
<5-49>

林之洋道：你們聽聽，只怕又是問道於盲來了<22>

무릇 백성중 일즉 과거의 성히지 못할것을 니르되 유민이라하니<5-87, 88>
凡庶民素未考試的，謂之游民<24>

넙가히 쓸이고 알프니 장춧 엇지 할리오<6-64>
嘴邊還痛，這便怎處？<26>

노뷔 오날날 큰거리 그웁흔 골목이며 술집과 차포리로 곳곳이 촌즈단녀
<7-23>

今日老父上去 或在通衢僻巷，故在酒肆茶塲<28>

아직 너의 구모의 병이 할리할 기드려<10-49, 50>
等你舅母疾好<43>

그썩 즈연 촌즈 도라오리니 저근덧 기드리며 엇더하뇨<10-50>
自然贊你尋來<43>

넉과 불과 이십이 못홀디 심성흔 벉 입시웁이 붉고 니회며<11-23>
年紀不到二旬，生得齒白唇紅<45>

② 古文體

그 니르오미 전일 장인국과 쇼인국쳐로 십빅는 모르거니와 삼스비 니식은
어드리아다<8-5>

雖不如長人國小人國，大獲甚利，看來也不止兩三倍利息<32>

무숨일 일항 속이시더니잇고<10-48>
怎麼一味隱瞞？<43>

우리 임의 이곳에 니른후는 언덕의 너킨 거름이라 다만 알프로 나아갈 뵈
다른 의논이 업스니<11-66, 67>

今既到此，據我愚見，只好且朝前進<47>

만일 그 녀지 운학드히 말을 할거든 날을 췌지 할라<13-57>
他如談起此道，務必把俺舉薦<52>

만일 원하야 머물고져 하는즈여은 허하야 임의로 풀히여 거쳐하게 하얏는
지라<16-63>

如願住者，悉聽其便<62>

위의 「古語와 古文體」항에서 古語로 例로 들은 것은 그 어휘가 한번 출현한 것이 아니라 재차 출현하여 古語로 확인된 것이거니와, 다만 위에서 들은 古語 외에도 상당한 분량이 있으나 다만 지면제약의 관계상 모두 수록지 못한 것이다. 또 古文體로 확인된 위에서 예로 들은 ‘처로’ <처림>, ‘무슴일’ <무슨일로>, ‘밭’ <밖엔>, ‘다히’ <답게>, ‘만일~쳐든’ <만일~한다면> 등도 번번히 출현된 古文體로 역시 지면관계상 하나의 例證만으로 省略한다.

위에서 들은 古語와 古文體가 또 있으나, 다음 ‘古語와 新語 및 古文體와 新文體’항에서 따로 예증되겠으므로 차항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나. 古語와 新語의 並用

①. 古語와 新語

① 다만 실과 어름으로 낱식습아 먹츨너 화식을 먹지아니하니 <3-5.6>
都以果木爲食, 剪炒烹調之物, 從不入口 <14>

이에 낱기를 농아오로 사고 먹일 열미를 만히 어더 <3-6>
於是買了兩個, 又買許多雀食 <14>

② 썰희 안으로 썩혀 썰알피 썩흔주 <1-75>
連根掘起, 多加柴炭, 立時燒燃 <4>

이제 흑치국은 지났거니와 이 압흐로 어느나라히 문풍이 썩흔 성흔지 머
리 마르치쇼셔 <4-77>

今日過了黑齒, 將來所到各國, 不知那幾處又風最盛, 倒要請教 <19>

③ 저사름이 이 흑즈 시비나고 <5-56>
若他是早晨生的 <22>

시벽벽람의 지촉호물 기다리지말나 <1-65>
葉待曉風催 <4>

②. 古文體와 新文體

① 다만 송공지 병야호로 병이 중하야 성자이 업슬분아녀 소영취산이 도되
요원하니<16-8>

但宋公子患病已除，現在人事不知，況離小瀛州甚遠<60>

만일 패로하면 공자의 성명을 보전치못홀분아니라 여러가지 난견하미 만
흐리이다<16-7>

沒有敗露，不獨公子枉送性命，並恐種種牽連<60>

② 너는 엇더홀 사롭이완디 이를 무러 장춧 엇지코져하느냐<16-17>

你是何人？問他怎麼？<60>

네 일즉 송소를 엇던 사롭으로 아나뇨<16-19>

但你同知宋素是何等樣人<60>

③ 왕필의 죄악이 결쥬에서 더하냐 하엿스니<4-61>

王弼的罪甚於桀紂<18>

남보다 눈이 더하고 코이더홀줄 모를년고<19-56>

難道還比人多個鼻子眼睛麼？<72>

위 項에서 언급된 古語와 新語의 並用에 있어서 ① ‘여름’과 ‘열매’의 경우 거의가 ‘열매’로 표기되고, ② ‘알피’와 ‘앞’의 경우, 거의가 ‘알피’로 표기되고, ③ ‘서벽’와 ‘새벽’의 경우 이들은 희소하게 출현하여 분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름’과 ‘열매’의 경우 거의 古語인 ‘여름’이 살아져가는 과정에 新語인 열매가 보편화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알피’와 ‘앞’의 경우, 古語인 ‘알피’가 당시 아직도 보편적으로 쓰히는 동시에 新語인 ‘앞’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을 엿볼 수 있겠다.

이들 외에 위에서 예로 들지않는 ‘남기’(木)와 ‘나무’의 경우 古語인 ‘남기’가 빈도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보아 역시 당시 古語 ‘남기’가 보편적으로 쓰히는 동시에 그의 新語인 ‘나무’가 비로소 출현하기 시작하

였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또한 위에서 예로 들은 ‘古文體와 新文體’에 있어서 ①의 경우 ‘아너’와 ‘아니라’에서는 古體인 ‘아너’로 거의 표기되고, ② ‘하느나’와 ‘하느나’의 경우, 거의가 반반이고, ③ ‘에서’와 ‘보다’인 경우, 거의가 古體인 ‘에서’로 표기되고 있다. 이로 보면 ‘아너’와 ‘아니라’의 경우, 당시 古體인 ‘아너’가 보편적으로 쓰히는 과정에 그의 新語인 ‘아니라’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느나’와 ‘하느나’의 의문문인 경우, 古體와 新體가 두루 並用되고 있음을 알겠고, 비교급인 ‘에서’와 ‘보다’의 경우, 역시 古體인 ‘에서’가 보편적으로 쓰히는 과정에 그의 新體인 ‘보다’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結 語

이상에서와 같이 第一奇諺을 문헌적 및 문학적 측면과 번역문화적 측면 내지 국어사적 측면에서 살폈다.

첫째, 문헌적 측면에서는 第一奇諺이 중국古典小說인 鏡花緣의 번역물로 번역자 홍희복에 의해 1835년 초에 번역에 착수되어 그간 13년을 걸러 1848년에 번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통하여, 鏡花緣이 1827년에 出刊된지 꼭 8년만에 번역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朝鮮과 中國과의 文化交接이 얼마나 민첩했는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第一奇諺의 序文에 담겨진 중국소설과 한국소설의 목록을 통하여 19세기 초엽 당시 우리나라에 유행된 중국소설과 한국소설을 알 수 있고, 또한 현재 우리나라 大河小說인 劉氏三代線·曹氏三代錄·明珠寶月聘·玩月會盟 등 소위 樂善齋本 小說들이 중국소설의 번역물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나라 소설로 國籍을 확인케 한다.

둘째, 第一奇諺의 序文에 담겨진 번역자 홍희복의 小說觀에서 우리는

유가적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道文一致를 확인할 수 있거니와, 말하자면 조선조 全域을 휩쓴 유가적 윤리의식이 조선조 말 19세기 초까지 지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번역자 홍희복이 유가적 윤리의식이 바탕이 된 小說觀에도 ‘자미’와 閨房을 의식했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자미의 의식은 번역자 홍희복의 文學觀을 敎訓을 위주로 하고 快樂을 부로 한 말하자면 西歐의 折衷주의적 文學觀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閨房의 의식은 조선조 小說觀이 閨房이 강하게 참여된 閨房文學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셋째, 第一奇諺에 나타난 번역자 홍희복의 번역동기 및 번역방법에서 우리도 異國小說인 鏡花緣의 원작에 충실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風俗과 讀者를 중심으로 意譯·改譯·添譯·縮譯 등 번역자의 다양한 방법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오늘날의 번역관이 원작에 철투철미 치중하는 것과는 달라서 우리나라 번역문학사상 번역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의의를 느낀다.

넷째, 국어사적 의의에 있어서는 第一奇諺이 갖고 있는 뚜렷한 번역년도를 통하여 우리나라 19세기 초까지 쓰여진 古語와 古文體의 양상을 엿볼 수 있고, 그리고 古語와 新語 및 古文體와 新文體의 並用을 통하여 우리는 당시까지 지속되고 사라져가는 古語와 古文體의 양상과 新語와 新文體의 등장을 아울러 엿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필자가 문학전공으로 국어사적 의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으며, 앞으로 이 문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검토는 불가불 국어학도에게 미는 수밖에 없다.

參 考 文 獻

- 洪羲福：第一奇諺
 李汝珍：鏡花緣〈臺灣，世界書局〉
 胡適：胡適文存〈臺灣，遠東圖書公司〉
 魯迅：中國小說史略〈香港，三聯書店〉

- 孟 瑤：中國小說史〈臺灣，傳記文學社〉
- 丁奎福：第一奇諺의 出現〈高大新聞 1982.9.〉
- 鄭炳昱：樂善齋文庫目錄 및 解題〈국어국문학(44·45)
국어국문학, 1969〉
- 李相擇：明珠寶月聘 解題〈‘明珠寶月聘’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豐山洪氏族譜〈豐山洪氏門中刊〉
中國人名大辭典〈臺灣商務印書館〉